



실속 재테크

초저금리시대

보험사 '확정형 연금' 노려라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연 3%대로 하락해 이자소득세와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실질금리는 이미 마이너스로 떨어졌다.

▲확정형 연금상품 인기

초저금리 시대, 보험회사들이 판매하는 확정금리형 연금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에 경우에 따라서는 시중 금리 하락과 반대로 이자율이 상승하는 상품도 있기 때문이다. 확정금리형 연금은 매달 보험료

하면 이자에 대해 비과세 혜택도 주어진다.

▲어떤 상품 있나

AIG생명은 '스타 연금보험'과 '뉴스타 연금보험' 등 두 가지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스타 연금보험'은 가입 후 10년 이상이 지난 시점에서 원금과 이자를 일시금이나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달라나 호주달러로도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16일 현재 이율은 원화로 가입할 경우 연

다 연 5.25%의 확정 금리가 만기까지 적용된다.

삼성생명의 '라이프파트너연금'은 3년·5년·10년형으로 나뉘어 있어 만기를 짧게 하고 싶을 때 활용해 볼 만하다. 500만원 이상의 금액으로 가입할 수 있고 5년형의 금리가 연 4.2%로 10년형(연 4.0%)보다 높다는 점이 특징이다.

가입 가능한 연령은 10년형이 만 15~70세, 3년 및 5년형이 만 15~74세이다.

알리안츠생명의 '뉴과워리치연금'은 원화·달러·유로 등 3가지 통화로 가입할 수 있다.

금리는 원화형이 연 4.6%, 달러형이 연 6.0%, 유로형이 연 4.1%이다. 원화로 환산했을 때 500만~10억원 범위에서 가입할 수 있고 가입 첫해에는 1.0%포인트의 보너스 금리가 지급된다.

ING생명의 '오렌지월드연금'은 가입 첫해에 1.5%포인트의 금리를 추가로 지급한다. 5년 또는 10년 만기로 가입할 수 있고 금리는 5년형이 연 4.0%, 10년형이 연 4.5%이다.

광주FP포럼 최혜영 총무는 "확정금리 연금 상품은 금리 하락에 따른 불확실성을 줄이면서 생활자금이나 목돈을 마련하기에 적합한 상품이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이율 연 4~5%...은행 정기예금보다 2%p 높아

가입 후 10년 이상 계약 유지면 비과세 혜택도

를 내는 일반적인 보험 상품과 달리 일정 금액 이상의 목돈을 가입 시 한꺼번에 낸 뒤 만기가 지났을 때 원금과 이자를 연금 형태로 받는 상품이다.

최근 일부 보험사에서는 만기가 되기 전이라도 매달 이자를 지급 받을 수 있는 '중도 이자 지급형' 상품도 선보이고 있다. 보험 가입 당시의 이율이 만기까지 유지되는 데 현재 공시 이율은 보험사별로 연 4~5%로 은행 정기예금 금리보다 최대 2%포인트 높다. 가입 후 10년 이상 계약을 유지

5.25%이고 달러형은 연 5.6%, 호주달러형은 연 4.15%이다.

원화형은 500만원 이상, 달러형과 호주달러형은 5천달러 이상의 금액으로 가입해야 한다.

원화형의 경우 가입 가능한 연령은 만 15~75세(여성은 76세)이고 만 45~80세 중 어느 한 시점을 연금 개시 시기로 정하면 된다.

'뉴스타 연금보험'은 가입 후 최소 1개월 후부터 매달 이자를 받을 수 있어 거액을 예치해 둔 뒤 매달 나오는 이자를 노후생활비나 자녀 교육비로 쓰기에 적합한 상품이

시속 400km... 날렵한 새 고속철

외형·실내디자인 확정

국토해양부는 최고속도 시속 400km로 운행할 수 있는 차세대 고속열차의 외형과 실내 디자인 시안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2013년 시제 열차 완성을 목표로 설계가 진행 중인 차세대 고속열차는 기존 KTX와 달리 동력이 분산돼 있어 가속, 감속이 편리하고 열차를 탄력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일반인 선호도 조사와 전문가 평가를 거쳐 선정된 디자인은 프랑스 TGV, 일본 신칸센, 독일 ICE 등이 주도해온 고속열차 디자인을 뛰어넘어 역동적이며 한국적인 감각을 살렸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실내는 개인별 좌석에 LCD를 부착해 탑승열차 위치와 역 도착 알람 정보 등을 제공하고, 승무원

원격 호출, 객실공기 청정도 자동 감시 시스템 등이 적용된다.

국토해양부는 2013년 시제 열차 완성 후 2년여의 안정화 기간을 거쳐 고속열차 노선에 투입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어음부도를 진정세

가파르게 상승했던 광주·전남지역 어음부도율이 3개월만에 진정세로 돌아섰다.

17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지난 달 광주·전남지역 어음부도율은 지난해 12월(1.52%)보다 무려 1.08%포인트나 하락한 0.44%를 기록했다.

광주·전남지역 어음부도율은 금융위기가 본격화된 지난해 10월 0.38%를 시작으로, 11월 0.44%, 12월 1.52%로 3개월 연속 상승 행진을 이어

오다 이번엔 하락세로 반전됐다.

특히 부도 발생으로 부도율이 이례적으로 높았던 지난해 12월과는 달리 예금 잔고 부족에 의한 부도금액이 73억원에서 38억원으로, 기존 부도업체의 부도 금액이 181억원에서 117억원으로 각각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는 광주가 0.54%로 전달(2.11%)에 비해 1.57%포인트, 전남은 0.34%로 전달보다 0.19%포인트 하락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www.littlechina.co.kr

중국어 초보, 중국어 전공자, 중국교포, 중국인...

취업 지원 성공률 100%!

1. 김민정 (25세) - 중국어 전공자, 중국어 회화 능력 우수

2. 이서연 (28세) - 중국어 초보, 중국인 친구를 통해 중국어 배우기

3. 박지현 (30세) - 중국어 전공자, 중국인 친구를 통해 중국어 배우기

리틀차이나와 함께하는

세세니 어린이 중국어지도사

062-233-9582

광주·전남 구조조정 대상기업 협력업체

韓銀, 특별자금 500억 지원

한국은행이 광주·전남지역 구조조정 대상기업 협력업체들에게 500억 원대의 특별자금지원에 나섰다.

한국은행 광주전남 본부는 17일 대우건설·C&중공업·대한조선·삼능건설 등 4개 구조조정 대상기업 협력업체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특별자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자금은 구조조정 대상기업이 많은 광주·전남지역에만 배

정된 것으로, 한국은행 자금과 은행권 자금을 50%씩 더해 대출하게 된다.

한은은 이를위해 광주전남본부에 150억원, 목포본부에 100억원의 특별자금을 배정했다. 한은 자금이 250억원인 만큼 최대 대출규모는 500억원에 달한다.

지원 대상은 광주·전남지역에 있는 대우건설 등 4개 구조조정 대상기

업의 협력업체로 업체당 최고 20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도 한은이 연 1.25%의 저리로 은행측에 자금을 지원받는 만큼 일반 기업대출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은행(시중·지방·특수은행)에 대출 신청을 하면 된다. 대출 심사는 협력업체들로부터 신청을 받은 은행측이 맡게

된다. 한은 광주전남본부 허남수 업무팀장은 "건설업과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있는 지역 협력업체들에게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지역경제 회복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17일 서울 여의도 KRX한국거래소에서 한 직원이 주가/원달러 그래프를 살펴보고 있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달보다 48.28포인트(4.10%) 폭락한 1,127.19로 마감했으며 원·달러 환율은 1455.50원으로 전달보다 28.00원 상승했다. /연합뉴스

환율 급등·주가 폭락

금융시장 다시 요동

원·달러 환율이 연일 급등하고 주가가 폭락하면서 17일 금융시장에 불안감이 확산됐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우려와 미국 제너럴모터스(GM)의 파산신청설 등 악재로 인한 환율 급등이 증시 불안을 불렀고, 주가 하락은 다시 환율과 채권금리를 끌어올렸다.

원·달러 환율은 이날 옛세제 급등하면서 두 달여 만에 1,455.50원으로 올라섰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전달보다 달러당 28.00원 급등한 1,455.5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지난해 12월5일 1,475.50원 이후 최고 수준이다.

증시에서는 코스피지수가 전달보

다 48.28포인트(4.10%) 폭락한 1,127.19로 마감했다. 이같은 지수는 지난달 23일 1,093.40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코스닥지수도 전달보다 19.70포인트(4.88%) 떨어진 383.17로 장을 마감해 하룻만에 400선을 내렸다.

이 같은 시장 불안에다 이날 오전 한나라당 최경환 수석정책위원장이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 "규모가 굉장히 클 것"이라고 언급한 영향으로 채권금리도 급등했다. 채권시장에서 이날 지표물인 5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달보다 0.32포인트 급등한 연 4.88%를 기록, 5%대에 바짝 다가섰다. /연합뉴스

직장인 10명중 8명꼴 "연봉 동결·삭감"

경기 불황의 여파로 올해 연봉 협상을 마친 직장인 10명 가운데 8명꼴로 임금이 작년과 같은 수준에서 동결되거나 오히려 깎인 것으로 조사됐다.

물가 상승분을 고려할 때 2명만 제외하고는 모두 급여가 삭감된 셈이다.

17일 온라인 리쿠르팅 업체 잡코리아(www.jobkorea.co.kr)에 따르면 지난 2~13일 연봉제 기

업 소속 직장인 9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6.8%(611명)가 올해 연봉 협상을 마무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봉 변동 여부를 묻자 이들에게 56.5%(345명)는 "작년 수준으로 동결됐다"고 답했고, 삭감됐다는 대답도 14.1%(86명)나 있었다. 작년보다 많은 연봉을 받기로 한 직장인은 180명(29.5%) 뿐이었다. /연합뉴스